



사진 1



사진 2



사진 3

## 석등[石燈] - 고려시대 사각석등 ⑤-1

사각석등은 화사석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고려시대 석등의 주류를 차지하는 형식이다. 이 석등은 고려 전 시기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의 팔각석등, 육각석등과는 달리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고려 말부터는 무덤 앞에 세우는 장명등(長明燈)으로도 나타나, 절집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던 장식적 조형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형태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표방하고 있는 위의 두 형태, 즉 사찰의 경내에 세워진 석등과 무덤 앞 장명등의 두 부류로 나누었을 때, 논산 관촉사 석등과 개성 현화사 터 석등, 개성 개국사 터 석등, 금강산 묘길상마애불 앞 석등, 충주 미륵대원 석등, 고려 대가야박물관 석등, 김천 직지사 대웅전 앞 석등이 전자의 예이고, 후자의 것으로 공민왕릉 석등과 고려 태조 왕건의 무덤인 현릉의 장명등을 꼽을 수 있다.

논산 관촉사 석등은 우리나라 최대의 석조불상인 은진미륵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은진미륵(석조관음보살입상) 앞에 관촉사 석등이 서 있는데, 거대한 불상을 마주하여 석등 또한 장대한 모습을 띠고 있다. 언뜻 보면 화사석 위에 또 하나의 화사석이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쪽은 화사석이 아니라 보개형태의 상륜부이다. 마치 화사석처럼 생겨 '제2화사석' 이니 '상층화사석' 이니 하는 이름들이 생겨났다. 아래쪽 대좌부 간주석은 3개의

사진1 논산 관촉사 석등// 고려시대// 전체높이 601cm// 보물 232호// 충남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관촉동)// 홍선 지음, 《석등》한국불교문화의 이해 1(놀와, 2011), 356쪽.

사진2 관촉사 석등의 지붕돌과 상륜부. (홍선 지음, 앞의 책 358쪽)

사진3 우리나라 최대의 불상 관촉사 은진미륵(석조관음보살입상)과 그 앞의 관촉사 석등. (홍선 지음, 앞의 책 364쪽)



사진 4



사진 5



사진 6

돌을 짜 맞추어 원기둥처럼 만들고, 기둥 위와 아래에는 두 줄의 둥근 띠를 양각으로 돌렸다. 한가운데에는 세 줄의 둥근 띠를 양각으로 돌렸는데, 가운데 띠에 네 장 꽃잎으로 이루어진 연꽃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자칫 단조로울 수도 있는 형태에 변화를 주면서 한층 살가움을 느끼게 해준다.

개성 현화사 터 석등은 일제강점기 때 원 소재지를 떠나 덕수궁, 경복궁을 거쳐 지금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앞뜰에 서 있다. 화사석의 경우 사각 상대석의 네 모서리에 각 1개씩 네 개의 기둥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각 지붕돌을 덮어서 화사부(火舍部)를 구성하였다. 화사석의 네 기둥돌과 간주석의 형태가 모두 고복형으로 같은 모습이 인상적인데, 전체적 균형감으로 보면 상대석에 비해 하대석이 왜소하여 매우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마치 다리에 비해 머리와 어깨가 크고 넓은 난장이처럼, 규모의 조화를 잃어버린 형태이다.

개성 개국사 터 석등은 1936년 일제강점기 때 원래의 위치를 떠나 지금 북한 개성역사박물관에 있다. 1018년 개국사 칠층석탑이 세워질 때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개국사는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전쟁의 영원한 종식과 나라의 번영을 빌기 위해 개경에 세운 10대 사찰 가운데 하나였다. 고려의 역대 왕들이 자주 찾았을 정도로 고려 시대의 일급 사찰이다. 개국사 터 석등을 보면 맨 꼭대기 보주(寶珠)를 뺀 석등의 모든 부분이 사각을 이루고 있다.

특히, 간주석의 아래위에 끝을 조금씩 남기고 귀절이하여 다듬은 사각 간주석이 독특하며, 간주석을 떠받치고 있는 상, 하대석의 연꽃잎 역시 길쭉한 주름 모양으로 다른 석등에서는 볼 수 없는 이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KEA

사진 및 자료 / 정영호 감수,《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홍선 지음,  
《석등》(놀와, 2011)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4 개성 현화사 터 석등// 고려(1020년)// 전체높이 434cm// 개성직할시 장풍군 월고리(현 국립중앙박물관)// 정영호 감수,《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183쪽.

사진5 현화사 터 석등 화사석 - 무늬 있는 네 개의 고복형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선 지음, 앞의 책 366쪽)

사진6 개성 개국사 터 석등// 고려(1018년 추정)// 전체높이 434cm// 북한 보존유적 32호// 개성직할시 개성시 덕임리(현 개성역사박물관)// 홍선 지음, 앞의 책 370쪽.